

2010. 5. 24.(월)

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, 신재생에너지 산업 2010년 중 20% 이상 성장세 기록 전망

- “2010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산업현황과 해외진출/수출화 전략”
보고서 발간

-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(keri.koreaexim.go.kr)는 5월 24일 “2010년중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경기회복 및 미국,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정책으로 20%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된다”며 “국내기업이 하루 빨리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지적했다.
-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풍력, 태양광, 바이오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분석한 “2010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산업현황과 해외진출/수출화 전략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.
- 보고서는 2009년 미국, 중국 등 신재생에너지 주요국은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에 1,98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, 2010년에도 경기 부양자금의 상당 부분을 청정에너지 산업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에 따라 201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38%, 풍력 시장은 25%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.
- 또한, 보고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- 우리나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력은 유럽 및 미국 업체의 80% 수준이고,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업체에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/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·개발 지원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정보 및 마케팅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.

- 한편,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수출확대 어려움으로 자금조달(32.8%), 해외마케팅(26.2%), 기술경쟁력 열세(21%)를 지적했다.
 - 또한, 정부에 대해서는 ‘국내보급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 및 경험축적’(60.3%), R&D 지원(25.2%),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(12.1%)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- “2010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산업현황과 해외진출/수출화 전략”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별로 세계시장, 국가별 정책 및 주요 선진기업 활동에 대한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 있으며, 이와 함께 국내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및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.
-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수출화 지원을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해외정보 및 전략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

문	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강정화(☎02-3779-5327)		
의	홍보실	공보팀장	신유근(☎02-3779-6065)